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전문가들, “향후 12개월 미 침체 진입...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에”
- Bloomberg: 뉴욕 제조업 지수 3개월 연속 하락중...-9.1%
- NYT: BoA 실적 보니 미 소비 여전히 강하고 활발하다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골드만삭스 조직 개편한다

[물류]

- CNBC: 2년간의 화물 운송 대란, 이제 숨통 트일 듯

[글로벌 경제]

- Bloomberg: 전문가들, 한국은행,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 중단할 듯
- Bloomberg: 중국, 야심 찬 시진핑 공약 위해 경제 두 배 늘릴 필요 있다
- NYT: 시진핑 임기, 오히려 비즈니스의 정부 통제 강화

[비즈니스와 업계 동향]

- Bloomberg: 버라이즌, 월마트에 새로운 선불 무선 인터넷 서비스 출시

[보고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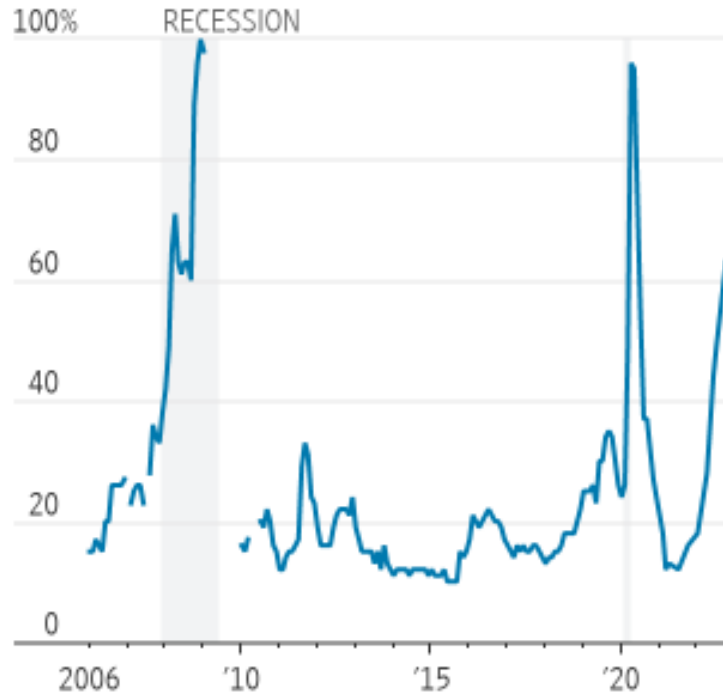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Economists Now Expect a Recession, Job Losses by Next Year **전문가들, “향후 12개월 미 침체 진입...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에”**

-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들 대상 설문 조사 결과,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, 경기 축소, 이에 따른 고용주의 일자리 축소로 인해 향후 12개월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.
- 응답자의 63%가 침체 가능성을 점쳐 7월의 같은 조사 응답자 49%보다 늘어났다. GDP 또한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줄어듦으로 전망했다. 1분기에 마이너스 0.2%, 2분기에 마이너스 0.1%로 예상된다는 것.
- 또한 연준은 내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초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답변했다.

Probability the U.S. is in a recession in next 12 months including today



Note: Gaps indicate question not asked or data unavailable.

Source: Wall Street Journal surveys of economists

WSJ 기사

Bloomberg: New York Manufacturing Activity Contracts for a Third Month 뉴욕 제조업 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중...-9.1%

- 제조업 관련 뉴욕 연방중앙은행의 전반적인 10월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거의 8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9.1%를 기록했다. 제로 미만은 위축을 의미한다.
- 뉴욕 연방은행의 신규 주문은 3.7로 전월과 비슷한데 약간 증가했다. 출하 지수(shipment)는 20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.3을 기록했다. 제조 고용은 약간 증가했다.
- 향후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1.8로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약했다. 응답자의 36%는 향후 6개월간 전반적인 비즈니스 여건이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.
-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뉴욕주 전역의 제조업체 최고경영자(CEO)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다.

Bloomberg 기사

NYT: Bank of America’s Latest Earnings Suggest U.S. Consumers

Remain Strong and Active**BoA 실적 보니 미 소비 여전히 강하고 활발하다**

-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Bank of America의 최근 실적에서 용자와 예금 상황을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에 아직 많은 미국인들에게 여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.
- 이 은행의 수익은 3분기에 71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% 줄었지만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었다. 소비자 예금은 1% 증가했고 크레딧 카드 소비는 13%나 늘었다.
- BoA 금융 책임자인 Alastair Borthwick는 “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아직 좋은 상황이며 빌릴 수 있는 능력이 계속되고 용자금도 높은 수준으로 갚아 나가고 있다”고 말했다 (They’re paying down their loan balances at elevated rates with continued ability to borrow).

NYT 기사

[미국 금융]**Bloomberg: Goldman Shakes Up Leadership Ranks in Yet Another Overhaul****골드만삭스 조직 개편한다**

- 골드만삭스를 이끄는 David Solomon은 CEO로서 단지 4년 만에 3번째 주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. 일부는 지난 2020년 그가 시도하려 했던 주요 변화를 다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- 이 은행은 과거 확장되었던 자사 관리 부문과 개인 자산(Private Wealth) 비즈니스 부문을 이제 다시 통합하기로 하고 또한 투자 बैं킹과 거래 운영(Trading Operations) 부문 합칠 예정이다. 2년 전의 입장에서 조직을 되돌리는 조치라 할 수 있다. 손실이 발생하는 소비자 부문은 해체할 방침이다. 구체적으로 실적이 미달된 consumer-banking business를 축소하게 된다.

Bloomberg 기사

[물류]**CNBC: After two years of shipping snarls, things are starting to turn around****2년간의 화물 운송 대란, 이제 숨통 트일 듯**

- 2년간의 항구 혼잡과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지나가고 있다. 중국 수출에 대한 서방의 수요가 줄어들고 세계 경제의 여건이 둔화되면서 화물 운송의 차질이 점차 줄어들며 시장 수용력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.
- 코로나19 절정 시기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컨테이너 운임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.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면서 컨테이

너 출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선박 대기시간이 줄고 선박들이 더 적은 양으로 운항하면서 선박 정체가 완화되고 있다.

- 컨테이너 운임의 핵심 기준인 Drewry 종합 세계 컨테이너 지수는 40피트 컨테이너당 3천 6백 89달러로 32주 연속 하락해 지난 9월 같은 기간보다 64% 낮은 수치이다. 상하이-뉴욕과 같은 주요 노선의 운임도 최대 13%까지 떨어졌다.



CNBC 기사

[글로벌 경제]

Bloomberg: Economists See Bank of Korea Ending Rate Hikes in First Quar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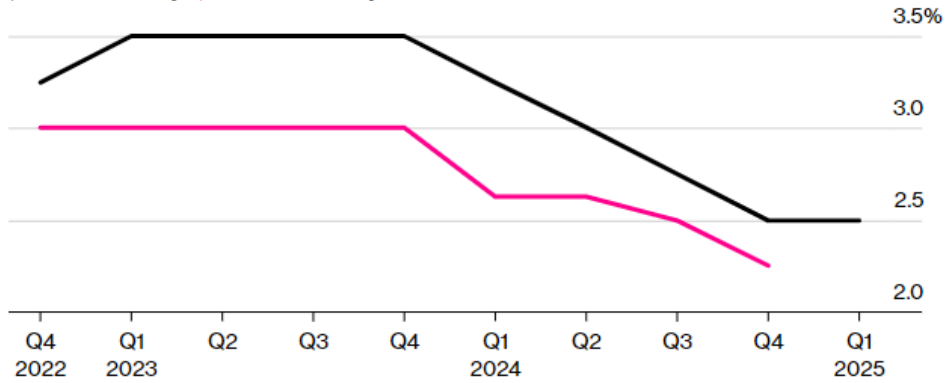
전문가들, 한국은행,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 중단할 듯

-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금리 고공행진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. 한국은행은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.25%로 25 베이스 포인트 올릴 것이며, 내년 1분기 중 또 한차례 올린 3.5%를 2023년 말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- 이러한 분석은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“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3.5%에 이를 것으로 본다.”고 말한 데에 따른 것이다.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0 베이스 포인트 올린 뒤 2022년 국내총생산(GDP) 성장 전망치를 2.6%로 유지했다.
- 한편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 성장 전망치를 2.1%에서 1.9%로 하향 조정하였고 2022년 전망치는 2.6%로 유지했다.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현재 분기 5.8%에서 5.5%로 하향 조정했지만 연간 전망치는 5.2%로 유지했다.

Higher Rates

Economists expect more Bank of Korea rate hikes through March 2023

Current survey Previous survey



Source: Bloomberg surveys
Note: 1Q 2025 forecast for the previous survey is not available.

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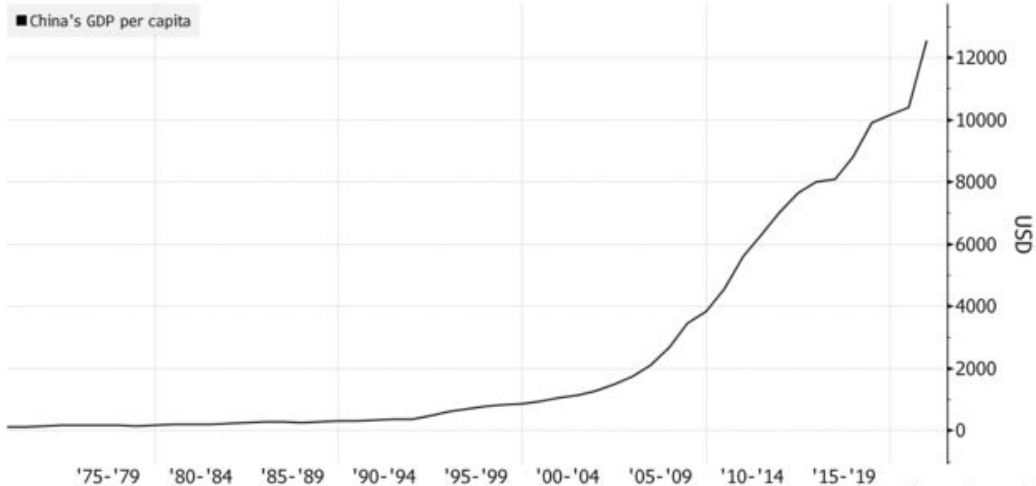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China's Economy Needs to Double in Size to Meet Xi's Ambitious Plans

중국, 야심 찬 시진핑 공약 위해 경제 두 배 늘릴 필요 있다

- 지난주 일요일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발표했다.
- 이는 경제 규모가 2020년 수준에서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UBS AG와 Macquarie Group 경제학자들은 2035년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이 약 4.7% 필요하며 이는 부동산 하락세, 인구 고령화, 미중 긴장 등을 고려했을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.
- 한편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3.3%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.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억제 정책과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것이다. 이는 연초에 중국 정부가 세운 공식 목표치인 5.5%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, 중국이 이처럼 큰 차이로 목표를 놓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Rising Income

China's GDP per capita jumps under Beijing's development-first push



Source: World Bank, Bloomberg

Bloomberg

Bloomberg 기사

NYT: In Xi's China, the Business of Business Is State-Controlled 시진핑 때, 오히려 비즈니스의 정부 통제 강화

- 시진핑 주석은 중국 지도자로서 첫 10년간 개혁과 경제 개방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다.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치달았다. 시 주석은 이번 주에 공산당 대회에서 3차례 연임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.
- 그러나 비즈니스 운영이 공산당의 목적에 맞춰지도록 강화하는 되돌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.
- 중국 내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대표인 Joerg Wuttke는 “중국 경제가 덩샤오핑 때처럼 외부 개방이라기보다는 내부로 더 향하는 추세이며 시진핑의 이데올로기 통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”고 말했다. 민간 기업의 용자 자율권도 크게 침해되고 있다.
-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국영기업체들은 중국 상장 회사 1백10개 이상을 흡수했고 가치로는 8백30억달러에 이른다. 즉,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비즈니스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것.
- 글로벌 자동차사 Stellantis의 CEO인 Carlos Tavares는 “중국에서 서구 기업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에서 중국의 정치적인 압력을 늘어나는 것”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.

NYT 기사

[비즈니스와 업계동향]

Bloomberg: Verizon to Sell New Prepaid Wireless Internet Service at Walmart

버라이즌, 월마트에 새로운 선불 무선 인터넷 서비스 출시

- 버라이즌(Verizon Communications Inc.)은 회사 발표를 통해 월마트에서 가정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월 45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. 이 서비스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월마트 매장에서만 판매될 예정으로, 연결 속도가 100Mbps로 제한되고 99달러인 가정용 라우터를 구입해야 한다.
- 이러한 버라이즌의 선불 인터넷 서비스는 경쟁사인 T-Mobile US에서 지난 3월 출시한 월 50달러 메트로 광대역 서비스에 필적하기 위한 것으로, 원래 선불 시장에 관심이 없었지만 점차 다른 통신사에게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.
- 한편 버라이즌은 지난해 66억 달러에 트랙폰(Tracfone)을 인수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선불 휴대전화 사업자가 되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바이든 "美경제 매우 견고, 강달러 걱정 안해...다른나라가 걱정"

전 세계 경제가 '킹달러'와 '인플레이션'으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매우 견고하다며 달러 강세 현상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.

15일(현지시간) 로이터·AP·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리건주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달러 강세를 걱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"달러 강세를 걱정하지 않는다"라며 "내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 나머지 부분"이라고 답했다.

바이든 대통령은 "우리 경제는 지독히 강하다(strong as hell)"라며 "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이고 미국보다 다른 모든 곳에서 사정이 더 나쁘다"라고 강조했다.

그는 이어 "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과 견실한 정책의 부족이 문제"라며 "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며 그것이 중대하다"고 덧붙였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